류현진, '별들의 잔치' 선발 임무완수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등판해 1회 아메리칸 리그를 상대로 투구하고 있다.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등판한 류현진은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1이닝 무실점 호투…한국선수 첫 선발 등판
12개 공 던져…아메리칸리그 올스타 4-3 승리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32·LA 다저스)이 1이닝 무실점 호투로 임무를 마쳤다.

류현진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등판,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올해 17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10승 2패 평균자책점 1.73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며 내셔널리그 올스타전 선발투수의 영광을 안았다.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시즌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강력한 사이영상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등도 올스타전에 참가했지만, 선발로 나온 것은 류현진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노모 히데오(일본) 이후 두 번째다.

내셔널리그 사령탑인 데이브 로버츠(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올스타전 선발등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고, 올스타전에 처음 나서는 류현진 역시 처음 미국에 올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친 투수는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다. 벌랜더는 올해 10승 4패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했다. 이닝당 출루허용율(WHIP)은 0.81로 류현진(0.91)보다 우위다.

벌랜더는 하비에르 바에즈(시카고 컵스)와 프레디 프리먼(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을 삼진으로 잡는 등 1회초를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1회말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조지 스프링어(휴스턴)에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DJ 르메이휴(뉴욕 양키스)와 강타자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을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2사 3루에서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고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날 류현진은 총 12개(스트라이크 7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구속은 90.6마일(146㎞)을 기록했다.

경기는 아메리칸리그 올스타가 4-3으로 이겼다. 2회말 앨릭스 브레그먼(휴스턴)의 안타와 마이클 브랜틀리(휴스턴)의 2루타를 묶어 선취점을 올린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스는 5회 1점을 추가한 후 2-1로 앞선 7회 조이 갈로(텍사스)의 솔로포 등으로 2점을 보탰다.

내셔널리그 올스타는 8회초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의 2타점 적시타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끝내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아메리칸리그는 7년 연속 승리를 거머쥐었고, 역대 전적에서도 45승 2무 43패로 앞섰다.

뉴시스

NC맨 이명기 "많은 사랑 받았구나 싶더라"

이명기(32)가 야구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NC맨'으로 새 출발한다.

NC는 6일 이우성을 KIA 타이거즈로 내주고, 이명기를 데려오는 1대 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벌써 두 번째 이적이다. 2006년 2차 8라운드 63순위로 SK에 지명된 이명기는 2017시즌 중 KIA로 트레이드됐다. 곧바로 팀의 핵심 선수로 안착하면서 그해 KIA의 우승을 견인했다.

순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NC도 이명기를 콕 집었다. 트레이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팀을 위해 나섰다.

트레이드 당일인 6일 곧바로 NC에 합류해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장하고 있다. 그만큼 팀이 필요로 한 선수란 의미다.

NC는 외야수 보강을 위해 이번 트레이드를 먼저 제안했다. 이동욱 NC 감독은 "큰 경기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다.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할 줄 안다.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한 베이스를 더 막을 수 있는 선수"라며 이명기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명기는 8일 자신의 SNS에 KIA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팬들의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다. "광주에 있으면서 고마운 일도 많았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SNS 반응을 보니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싶더라"며 팬들에게 인사했다.

"NC에서도 우승 반지를 껴서 팬들의 응원을 받고 싶다"며 "야구장에 오는 분들을 위해 팀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많이 출루하고, 득점권에서 해결해주면 팀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을 빛냈다.

김신욱, 상하이 입단 "최강희 감독과 위기의 팀 구할 것"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에 입단한 김신욱(31)이 위기의 팀을 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현대를 떠난 김신욱은 9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선화 입단식에 참석했다. 등번호는 20이다.

김신욱은 현지 시나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곤경에 빠진 팀을 구할 것이다. 나는 최강희 감독님과 함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봤다"며 "함께 팀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상하이 선화는 리그에서 3승3무10패(승점 12)로 16개 구단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김신욱은 "봄과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중국 슈퍼리그 소속의 여러 팀들과 경기했다. 올해는 강팀인 베이징 궈안, 상하이 상강과 대결했다"면서 "이 상대들을 만나고 싶다. 골을 넣고 승리를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문원중~과천고~중앙대를 거친 김신욱은 2009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해 2016년부터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 통산 350경기에 출전해 132골 31도움을 올렸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적의 큰 배경이다. 전북에서 김신욱을 지도했다.

최 감독과 김신욱은 전북에서 201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2017·2018년 K리그 2연패 등을 함께 했다.

최 감독은 "후반기에는 이기는 경기가 많이 필요하다. 김신욱이 열심히 뛰어줘야 한다"며 제자와의 재회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데키·쑨양 등 수영 별들 '광주행'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수영 스타들이 격전지 광주에 발을 딛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6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일 선수들이 개인 훈련을 마치고 광주와 여수에 잇따라 입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오픈워터수영 스타 프랑스의 앙투앙 올리비에와 오헬리 뮐러가 이날 여수공항을 통해 격전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으로 향한다.

이들은 본 경기에 앞서 몸을 푼 뒤 5㎞, 10㎞, 25㎞코스에 걸려있는 7개의 금메달에 도전한다.

올리비에는 2017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올리비에의 경쟁자 페리 비어트만(네덜란드)은 지난 8일 입국해 몸을 풀고 있다.

뮐러도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노리고 있다.

대회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의 수영수타 카엘렙 드레셀과 케이티 레데키, 중국의 쑨양도 광주 입성을 서두르고 있다.

드레셀은 이번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50m·100m·접영 50m·100m 등에 출전해 다관왕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17세계수영대회에서 개인종목과 혼성종목 등에 출전해 7관왕을 차지했으며 2016리우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7일 무안공항을 통해 광주에 들어올 예정인 드레셀은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차지해 펠프스가 갖고 있는 '수영황제' 별칭을 빼앗겠다는 각오다.

드레셀과 함께 광주를 찾는 여자 수영 간판 케이티 레데키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400m와 800m, 1500m 3분56초46, 8분4초79, 15분20초48의 세계기록 깨기에 나선다.

쑨양은 드레셀보다 3일 앞선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광주에 들어와 몸을 푼다.

쑨양은 2017세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 2016리우올림픽에서 금 2개를 획득해 세계적 수영스타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경기인 하이다이빙의 스타들은 18일 잇따라 광주에 발을 딛는다.

게리 헌트(영국)를 비롯해 스티븐 로뷰(미국), 리아난 이프랜드(호주), 아드리아나 히메네즈(멕시코)는 조선대 운동장에서 설치된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무등산과 광주시내를 배경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기를 펼친다.

수구에서 메달 경쟁을 펼칠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대표팀은 12일과 13일 광주공항 등을 통해 입국해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일전을 펼친다.

최종삼 선수촌장 "北선수단 참여 마지막까지 희망"

최종삼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장은 10일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주면 대회가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회 개막 이틀 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 선수촌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VIP 접견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선수단이 몇 명이 오든 참여 가능하다. 충분한 숙소를 마련해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에선 치열하게 승부를 겨뤄도 선수촌만큼은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각국 선수들이)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되, 선수촌 생활은 편안하게 즐겼으면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안락한 환경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최첨단 의료·편의·놀이시설과 편안한 숙소를 마련했다. 광주가 예향의 도시인 만큼 맛있는 음식과 각종 문화 공연도 준비했다"고 말했다.